

'반려동물 놀이터 · 동물복지센터 필요'

'전주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5개년 동물복지 정책 수립 계획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복지를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늘리고, 유기동물 보호소와 입양센터 기능을 갖춘 동물복지지원센터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체용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최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주시 동물복지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6개월 동안 추진되는 이번 용역은 반려동물들과 생활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동물복지 침해 사례분석과 민간 협력 동물보호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각종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될 중장기 동물복지 정책 및그림을 그리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용역책임연구원인 임 교수는 그간 추진한 분야별 동물복지 실태조사와 동물복지 침해 사례분석, 동물복지 선진국과 국내 동물복지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추진방향과 정책·사업들을 제안했다.

특히, 임 교수는 설문조사결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손꼽힌 △물리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확립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정기적인 안전관리 홍보·교육 △반려견 놀이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또 최근 오송제 불법 개농장 개 구조와 잇따른 반려견 유기 등 구조동물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기동물보호소와 입양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오는 5월과 6월 전문가 자문과 추가 설문조사, 길고양이를 위한 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향후 5개년간 추진될 중장기 동물복지 정책 및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해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이 함께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정기검사 안내문 4개 국어 제작

전주시가 자동차관련법규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운전자들을 위해 4개 국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시는 차량을 운행하는 외국인이 자동차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해 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문' 2000부를 자체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 안내 △보험 및 검사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록 사항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20% 감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시 4개 국어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전주에서 열리는 다문화가족·외국인 관련 행사시에 이를 활용해 홍보하거나, 상담 및 문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배포 할 계획이다.

4개 국어로 된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서도 게시된다.

강유현 전주시 차량등록과장은 "전주 거주 외국인은 7,55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의사소통의 한계로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외국인이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각종 불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적십자 고액기부자 클럽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전북 1호 회원(오른쪽)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아너스클럽 제공)

적십자 아너스클럽 전북 1호 탄생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대표이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지난 30일 적십자 고액기부자 클럽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전북 1호 회원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대표이사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전북적십자 상임위원으로 재임했고 지난해부터 중앙위원으로 선출돼 적십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과 상

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접할 수 있었다. 가난,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적십자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적십자사는 김 대표에게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명패를 전달하고 기부금은 전북지역 취약계층 긴급지원, 재난구호 활동, 위기가정 지원 등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

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광호 전북적십자 회장은 "에너지 기업인 전북도시가스를 운영하는 김홍식 중앙위원이 전북 1호로 아너스클럽 가입에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기부금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은 기부금 1억원을 적십자에 납부하거나 5년 안에 1억원 납부를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90명의 회원이 있다.

/이상민 기자

어린이날 생태체험 특별 프로그램

전주자연생태관, 가족영화 · 닥터피쉬 오감체험 등 다채

전주자연생태관이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생태도시 전주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이 기간 동안 미니돼지와 미니토끼, 대형 육지거북 및 장수풍뎡이를 전시하고, △컬러클레이를 이용한 곤충 등 만들기 △반딧불이·닥터피쉬 체험 △가족 영화상영 등을 진행한다.

먼저, 자연생태관내 1층에서는 대형육지거북과 장수풍뎡이를 전시하며, 생태관을 찾은 어린이들은 먹이주기를 통한 생물의 습성을 관찰할 수 있다. 또, 수조에 손을 넣으면 각질을 제거해주는 닥터피쉬도 체험을 할 수 있다.

생태관 2층에서는 미니돼지와 미니토끼, 기니피그를 전시 어린이들과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충류캐릭터 포토존을 설치해 자연생태관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생태

관 내 반딧불이 정원에서는 꿈꾸니에서 반딧불이 빛을 내는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자연생태관은 어린이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컬러클레이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자연생태관 2층 영상실에서는 감동과 따뜻함을 선사할 가족영화 3편(생, 마이펫의 이중생활, 아이스에이지)이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2시부터 상영될 예정이다.

전주자연생태관 관계자는 "어린이날 만2세 이하 어린이의 무료 관람과 연휴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연휴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자연생태관 홈페이지(ecomuseum.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기자

"이지콜택시, 어린이날 가족나들이 지원"

전주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지콜센터는 오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약자에게 이지콜 택시를 무료로 운행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평소 진료 및 재활을 위해 이지콜을 이용하는 어린이 교통약자에게 비록 하루지만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됐다.

무료 운행은 어린이날 당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되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지콜센터(063-271-2727)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전주동물원 및 어린이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만 13세 미만의 장애인(1·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3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보조구 사용자)를 가진 이동을 동반한 가족이다.

단 출발지가 전주시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동취재반

밤만 되면 절도행각... 지적장애 30대 검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지적장애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30일 절도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상점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30차례에 걸쳐 익산 일대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그는 밤이 되면 길가를 서성이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등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 수법에 비춰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